

李대통령 訪日과 한·일 산업협력

사공 목
(연구위원 · 국제산업협력실)
skmok@kiet.re.kr

〈요 약〉

3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나 정상회담으로 인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양국 경제(산업)협력 실태를 개관하면, 對日 무역적자 확대,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대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구노력 강화와 함께 일본 부품소재산업의 對韓 투자 확대 등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부품소재 분야의 일본기업 유치에 위해서는 전용공단 조성, 인프라 정비,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며, 한국의 대형 수요업체가 있는 업종의 유치가 효과적이다.

‘한·일 산업협력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협력 가능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일본의 기술자 초청 및 연수 확대 등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한·일 양국 간의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의 강력한 수요업체의 육성, 기술능력 배양 등 우리의 핵심역량(코어 컴피턴스)을 배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1. 머리말

최근 李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경색되어 왔던 한·일 관계

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전에 일본과는 독도문제, 야스쿠니 참배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바 있다. 그러나 실용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하여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李대통령의 訪日(2008. 4. 20~21)은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訪日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3년 4개월 만에 실현된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후 첫 방문지를 미국과 일본으로 선정한 것은 미·일 관계 중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訪韓한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3년 만에 복원하였다.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 양국 협력관계의 신시대를 열어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매스컴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¹⁾하였고, 특히 일본기업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나 정상회담으로 인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평가하고, 그간의 양국 산업협력의 현황을 개관한 후, 향후 양국 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방안들을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2.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합의 사항 및 관련 내용은 <표 1>과 같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경제협력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부품소재 분야에서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 유치 등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고 실제로 상당한 투자유치 성과도 실현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설치 검토를 표명하였다. 비록 후쿠다 총리로부터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얻어내지는 못하였으나 일본 부품산업의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추진된 한국의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 일본 태양전지업체인 소닉스와 2억 7,000만 달러, 액정표시장치

1) 예컨대, 일본경제신문은 4월 22일자 사설 등을 통해서 "이번에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도록 양국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 대하여 큰 기대를 표명하였음."

<표 1>

한·일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주요 합의 사항 및 관련 내용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틀외교 정착 및 정상외교 활성화 - 현재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 참가자 상한을 2009년에 7,200명, 201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 - 유학에 대해 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새로이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개시 - 양국 전문가로 구성된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지원 -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협조
경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Business Summit Roundtable' 설치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경제연계협정(EPA)의 체결 교섭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 중 개최 -李대통령,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 '부품·소재전용공단' 설치 의사 피력 - 부품소재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절단 파견, 전시상담회 등 확대 - 양국 중소기업정책 실시기관·민간단체가 참가하는 당국 간 협의 실시 - 한·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한·일 비즈니스 교류 촉진사업 및 지역 간 교류 사업 등의 활성화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 - 후쿠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및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설명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이후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 - 한·중·일 산업교류회(금년 6월)에서 에너지절약, 환경분야의 협력 추진 - 한·중·일 정상회의를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

(LCD) 기관업체인 아사히글라스와 1억 5,000만 달러 등 모두 5개 기업과 5억 9,000만 달러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둘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금년 6월 중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FTA협상

재개 가능성 타진을 위한 협의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일 FTA 추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적극적인 협상 재개를, 우리 측은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확대, 對日 무역적자 축소 등이 선결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였다.²⁾

2) 일본경제신문(4월 22일자)에 따르면 정상회담 사전협의에서 일본 측은 FTA(EPA) 교섭을 재개하면 한국 측에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협력에 협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우리 측은 기술협력을 선행해 줄 것을 주문하여 양국 간 FTA 조기 교섭 재개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본 측으로서는 교섭재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회담 성격의 실무협의 개최를 6월에 하기로 합의한 것만 해도 진일보한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양국 경제인 간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BSR)’을 개최하여 5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하는 등 협의채널을 구축한 것은 향후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 양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환경에너지 절약 등에서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 정비 방안 검토,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 한·일 FTA 교섭 재개를 위해 두 나라 정상의 관심과 지원 요청,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맡아야 할 역할 검토에 합의³⁾하였다.

넷째,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향후 양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도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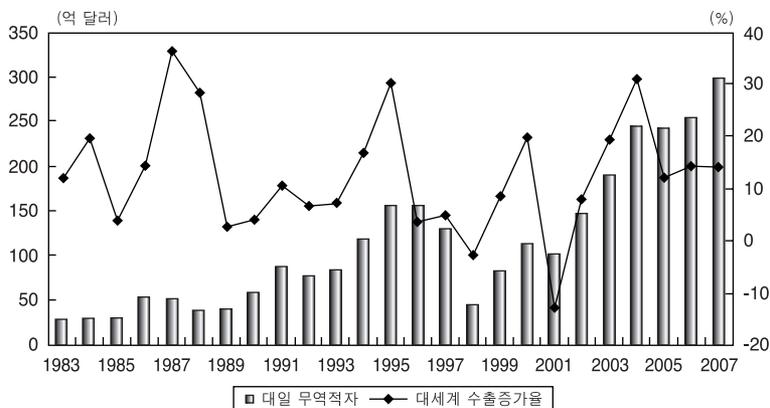
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3,600명인 한·일 간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visa) 참가자 상한을 2009년에 7,200명, 2012년까지 1만명으로 확대하고, 유학에 대해 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새로이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개시에 합의하였다.

3. 한·일 산업협력 현황

(1) 무역측면 : 부품·소재의 對日 의존이 對日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

대체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하면, 일본의 부품소재나 자본재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대일 무역적자가

〈그림 1〉 우리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과 대일 무역적자의 관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에 의거 작성.

3) 전경련 사이트 및 「한국경제신문」, 2008. 4. 22일자 A3면.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와 대세계 수출의 상관계수는 1990~2007년 중 0.910이며, 특히 1999~2007년 중은 0.94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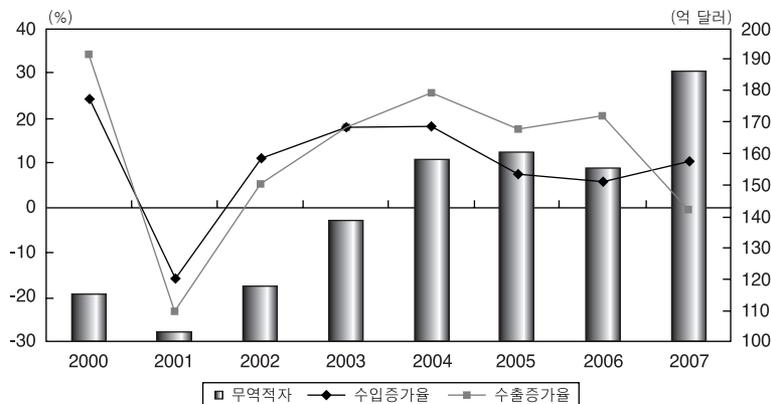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적자액은 200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일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적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즉,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액은 2004년 159억 달러에서 2007년 187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중 대일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9%에서 62.5%로 낮아지고 있다. 대일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적자는 2006년 156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5억 달러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되었으나, 2007년 들어 다시 전년대비

31억 달러 증가한 18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6년 대일 무역적자의 개선에는 삼성-소니의 합작사인 S-LCD사의 대일 수출 증대가 크게 기여⁴⁾하였다는 점을 특기하고 싶다. 이는 부품소재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가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책이 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수출은 2001년 이후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2007년에는 증가율이 -0.8%로 급락하였다.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수입은 2001년 이후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04년 이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10.3%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품목별 대일

〈그림 2〉 부품소재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적자 추이



자료 : 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산업통계 DB」.

4) 액정 디바이스의 대일 수출은 2005년 14억 3,000만 달러에서 2006년 30억 9,000만 달러로 116.7%나 급증하였다.

〈표 2〉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품목별 대일 무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섬유제품	187	189	-2	173	203	-30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12	4,519	-3,207	1,395	5,060	-3,66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91	1,587	-1,196	381	1,974	-1,594
비금속광물	136	1,223	-1,087	175	1,470	-1,295
제1차금속	1,915	5,711	-3,796	2,453	6,435	-3,982
조립금속제품	320	334	-14	289	335	-47
일반기계부품	1,479	3,361	-1,882	1,605	3,595	-1,990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258	339	-81	298	386	-88
전기기계부품	549	2,122	-1,573	651	2,087	-1,436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부품	6,410	6,741	-331	5,422	7,547	-2,126
정밀기기부품	158	1,801	-1,643	142	1,754	-1,612
수송기계부품	514	1,265	-751	541	1,352	-811
부품소재 합계	13,629	29,192	-15,564	13,523	32,198	-18,675
전체 대일 무역적자	26,534	51,926	-25,392	26,370	56,250	-29,880

자료 : 기계산업진흥회, 「부품·소재산업통계 DB」.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대일 수입규모가 큰 품목은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부품(75.5억 달러), 철강 등 제1차 금속제품(64.3억 달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50.6억 달러), 일반기계부품(35.9억 달러), 전기기계부품(20.9억 달러) 등이다. 부품소재의 품목별 대일 무역적자가 가장 큰 품목(2007년)은 제1차금속, 화합물·화학제품,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부품, 일반기계의 순이다(〈표 2〉 참조).

(2) 투자측면 : 일본의 對韓 투자액과 건수의 비중도 저하

일본의 대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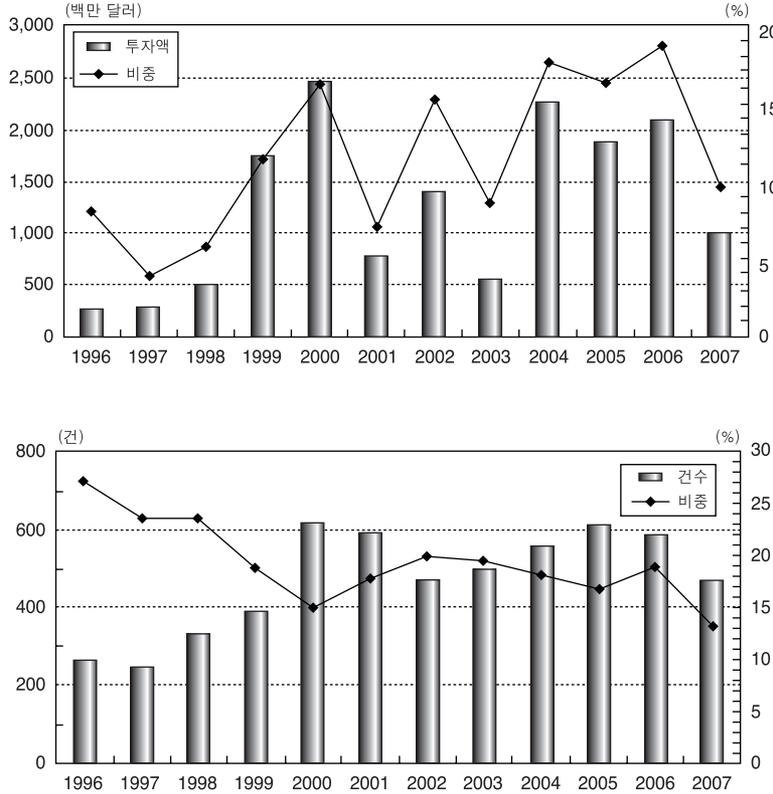
의 구조조정기인 2000년에 24억 5,000만 달러(신고기준, 이하 동)를 기록한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소니, 아사히글라스 등의 대형투자에 힘입어 회복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21억 1,000만 달러에 크게 못 미친 9억 9,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2000년 16.1%에서 2007년에는 9.4%로 하락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한 투자 건수는 1996년 262건에서 2006년에는 584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에는 469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전

〈그림 3〉

일본의 대한 투자 실적과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각년호.
 주 : 신고기준.

체 외국인투자 건수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996년의 27.0%에서 2007년에는 13.2%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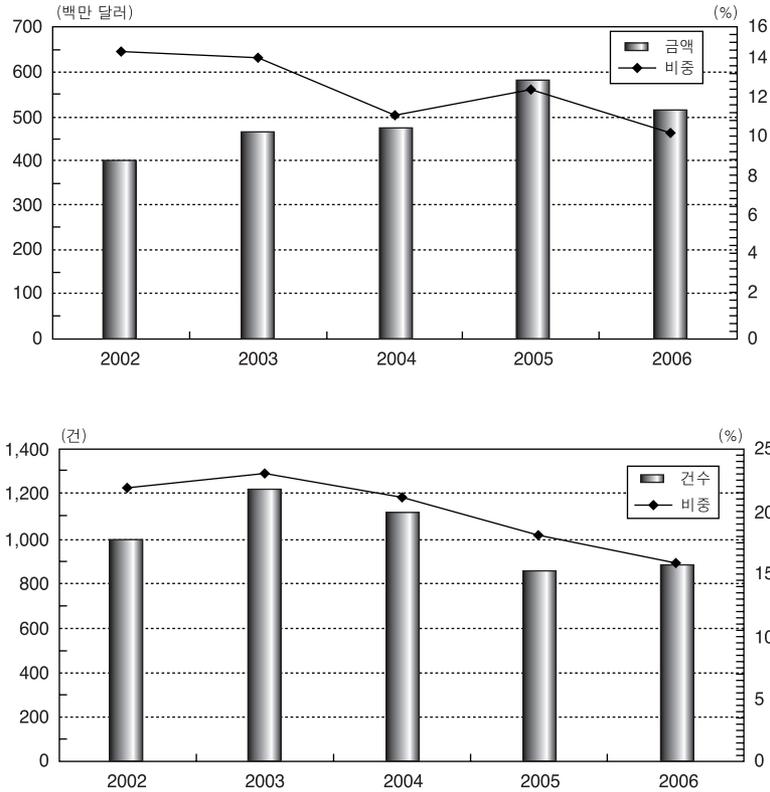
(3) 산업기술협력 측면 :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중이나 對日 기술 도입액과 건수의 비중 저하

한·일 산업기술협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일산

업기술협력재단을 들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연수사업(162명), 일본기술자 초청 단기기술지도(7사), 일본 퇴역기술자 활용을 위한 기술자 DB구축(180명), 기술고문 매칭(5사), 일본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대일 기술도입은 금액 면에서는 2002년 4억 달러에서 2006년 5억 1,000만 달러로 다소 증가추세를

〈그림 4〉 우리의 대일 기술도입 건수 및 금액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8, 「기술무역통계조사 보고서」, 각년호.

보이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전체 기술 도입액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14.8%에서 10.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수 면에서는 2003년 1,221건에서 2006년에는 88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체 기술 도입 건수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동 기간 중 23.2%에서 16.0%로 감소 추세이다.

4. 향후 양국 간 산업협력 확대 방안 모색

(1) 부품소재 분야의 일본기업 유치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이번 정상회담에서 李대통령은 일본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품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

년 중에 공단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공단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며, 후보지로는 현재 포항, 구미,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전용부품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입규모⁵⁾나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치 유망업종 선정, 인력조달, 배후지산업, 물류, 입지, 일본기업의 수요 등의 여건 검토가 필요하다.

부품소재분야 등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공단 조성, 인프라 정비,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 부품소재업체의 경우 주변에 강력한 수요처가 있거나 공동제품 개발이 가능한 동료 기업이 있어야 하므로 연관산업이 집단으로 집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IT분야 등 한국에 대형 수요처가 있는 산업이나 수송 물류의 부담이 큰 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LCD 유리기판을 공급하는 아사히글라스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무역 및 투자 확대,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국민·관 무역투자 다이어로그(가칭)'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수하다. 특히 수요 측면 일본기업의 요구사항과 의향 파악 및 이들과의 협의가 일본업체의 대한 투자 유치에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는 대일 무역적자 개선과 향후 한·일 FTA 체결의 성공을 위해서도 긴요한 과제이므로 양국의 동반성장과 공동번영 추구를 위해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산업협력 수요조사 및 협력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한·일 양국은 많은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산업협력 가능 분야를 찾는 것은 실제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양국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부품소재산업 분야, 생산기반기술 분야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추진이 필요하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이동통신, 나노, BT 분야 등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신

5) 전술한 전자·영상·음향 통신기기부품(75.5억 달러), 철강 등 제1차 금속제품(64.3억 달러), 화합물 및 화학제품(50.6억 달러), 일반기계부품(35.9억 달러), 전기기계부품(20.9억 달러) 등이 수입규모가 큰 부품소재 품목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국제기구 및 제3국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1단계는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양국의 수요 조사, 2단계는 선별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나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일 간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미래기술 선도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차세대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이나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순수 민간기업의 기술보다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개발기술에 대한 지분참가에 의한 공동연구 등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각각 혹은 공동으로 '한·일 산업협력 기금(가칭)'을 조성하여 해당 기관의 수요 조사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일본의 퇴직기술자 활용, 연수 확대 등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현재 한국 측은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이나 중소기업 유관단체에서 일본 퇴직기술자의 알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이나 일본능률협회 등을 통하여 일본의 퇴직기술자가 한국

에 취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바의 기술고문인 무라타 후쿠조(村田福造)는 도요타에서 30년간 일한 뒤 18년째 삼성전자에 '도요타 방식'을 조언⁶⁾하고 있다. 일본 측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 강화 등에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기술교류협력 강화책으로서 퇴직 기술자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퇴직기술자가 한국의 대기업이나 부품소재 기업에 기술고문으로 취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정보제공 및 비용보조 확대 등 양국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기술자 관련 DB 구축·확충 등 알선 및 지원 체제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일본은 단카이(團塊)세대⁷⁾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 이들의 유치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경우 산업기반 기술의 낙후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열처리, 도금 등 취약한 기반기술 강화를 위해 일본기업에 연수생을 파견하거나 일본 전문가의 초청 지도 등의 협력 사업 강화도 필요하다.

6) 「중앙일보」, 2008. 3. 20.

7) 1947~49년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

(4) 우리의 핵심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산업협력 확대의 관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일방이 수혜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미래 첨단소재 등에 대한 공동개발 등 양국 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강력한 수요업체의 육성, 기술능력 배양 등 우리의 핵심역량(코어 컴피턴스: core competence)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자 및 엔지니어, 기능공에 대한 우대책을 강구함으로써 R&D 인력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지 않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중시하고 도금, 주물, 열처리 등 기반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며 협력의 기반이 됨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너무 첨단기술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여 상업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우 기능공은 학력을 불문하고 능력이 있으면 우대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고, 수십년간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점진적 개선과 혁신을 반복하는 것이 일본의 기술능력 축적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